

大學의 根本思想(完)

靜山

(三)誠意, 誠意는 어셔한 것인가 쏘는 致知格物이 어셔한 意味에서 意를 할 것인가. 몬저 그 字義부터 註釋하면 意라함은 朱子의 말슴과 갓치 「意者 心之所發」이니 念慮 情緒 慾望 等の 總稱을 이르리다. 그런데 意는 本體요. 慾望을 意의 發現이라고하면 心은 意의 本源일 것이다. 다음에 「誠」이라함은 「誠은實地」라고 朱子의 말슴과 갓치 僞함이 업음을 이름이다. 그럼으로 誠意라 함은 「實其心之所發, 欲其心自慊而無自欺也」라 하는 것이니 自慊而無自欺가 即 誠意이다.

大學에 所謂誠其意者 毋自其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이라고 한 것은 이를 例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無自欺는 消極的이오. 自慊은 積極的이다. 그러나 二者가 그리 懸隔이 有한 것이 아니오. 스스로 함이 無하면 스스로 慊하게되는 것이다. 心을 正하기 위하여 何故로 誠意가 必要한 것인가. 그것은 心과 意와의 關係가 가장 密接함으로써이니 心은 意 實(本體)이고 意는 心의 作用이다. 若 誠意없는 行動을 쟈쟈로 거둑하게 되면 그것이 動機가 되야 心에 惡影響을 波及케되나니 이에 惡品性을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失에交하면 亦이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正心에는 반듯이 誠意를 必要로 하는 것이니 意誠而後心正이 即 이것이다.

現代의 論理學上으로 말할지라도 가장 正當한 考察이라 할 수 잇는 것이다. 그 까닭은 道德的 品性을 樹立함에는 그 志向動機를 純粹히하고 所謂感覺的 意欲의 奴隸가 되지 안음을 要함으로써이다. 大蓋 誠意한 方法으로 毋自欺를 말하엿으니 毋自欺는 곧 慎獨工夫를 이르는 것이다. 慎獨이라함은 「獨을 慎한다」는 것이니 獨居不善에 싸지지 안키를 期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君子慎其獨也」라고 大蓋 「小人閒居爲不善 無所不至」외의 念慮가 잇는 까닭이다. 慎獨이라는 말은 中庸에도 述하여잇는 것이다. 이 儒敎道德의 根底가 個人에 잇어서 그 個人이 善人이 되고 惡人이 되는 것은 그 源流

가 獨處를 慎하며 慎치못하는데 由하는 것이 甚大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이 思想은 儒敎乃至宋儒의 人生觀에 깊은 根據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卽 사람에게는 本然의 性(善)과 氣質의 性(惡)乃至良知(善)에 對하여 物慾(惡)이 있어 時時로 氣質의 性 乃至 物慾이 本然의 性 乃至 先天良知를 어둡게 하고 本來의 善을 惡하게까지 墮落케함이 있는 것이다. 換言하면 이 善惡二元論又是 善惡混合論는 必然的으로 慎獨思想을 誘致하지 안어서는 안 될 것이다. 要컨대 慎獨은 가장 重要한것이니 그럼으로 陽明王子도 「修身惟在於誠意, 誠意只是慎獨」이라고 더욱이 慎獨은 現今 實踐道德上, 「德器의 成就」에 際하여서도 肝要한 修爲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다음에 誠意와 致知格物과의 關係를 보면 大學에는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이라고 示하였다. 그 意味는 엇썌한 것인가. 其內容으로는 學派가 서로 意義를 달니하는 것이다. 例컨대 晦庵朱子에 依하면 理를 窮하고 知를 廣하면은 意가 誠하였다. 更히 換言하면 朱子에 잇어서는 知(一般的 知識)를 開發하면 意가 誠한다고 王子는 意의 所在를 格(正)하면 意誠이 된다고 하였다. 其外或者는 禮樂射御數의 文藝를 收得하면 意誠이 된다 하였다. 이것이 誠意와 致知格物과의 關係를 說明한 것이다 그런데 日本學派에 或者는 말하기를 「現代의 思潮로 보면 其間에 自然이 巧拙 適不適이있다. 大蓋 意를 誠코자함에는 知識에 訴하여 正邪善惡을 알게 할 수 업는 必要잇는 點으로 말하면 朱子の 說이 優王子의 事上練磨도 또한 크게 必要한 것이다. 勿論 朱王子 다갓치 그저 窮理行動畧을 主張한 것은 아니오. 輕重의 差가 잇다고 한 것이니 도모지 그 要素로써 知와 意와의 兩方을 認하는것이니 이런 意味로 이것을 正解하고 그대로 行하면 다 一般에 도라갈 것이다. 換言하면 意를 誠할 수 잇다는 것이다」 하였으나 朝鮮學者는 그와 反對로 王說을 排擊하고 朱說을 崇奉하는者-거의 全數이다.

(四) 正心 意가 임의 誠하면 여기에 心正이 되는 것이다. 正心이라 함은 心情이 正常을 得한다는 것이다. 蓋 吾人의 心에는 忿怒, 恐懼, 好樂, 憂患等의 情緒가 잇나니 時々로 그 心의 正體를 失함이 잇는 고로 意를 誠함과 동시에 그 體되는 心을 正하도록 하는 工夫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意誠而心正」이라고 만일 心이 忿怒 恐懼, 好樂, 憂患等의 情緒 感情에 支配가 되야 正常을 不得할새에는 視하여도 見치못하고 聽하여도 聞치못하고 食하여도 그 味를 識別할 수가 업게 되는 것이다. 則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의 狀態를 現出하는것이니 이썌한 바 正心의 緊要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關하여 異論을 唱한 者가 잇으니 그것은 正心은 卽 佛敎에 이른바 「除煩惱 絕恐怖 去惡欲 七情離斷」의 思想이니 要컨대 心空性

空 勸하는 것인바 聖門의 學은 아니라고 論하였다. 續禮記集說의 清姚際恒의 說이 이것이다.

(五)修身修身이라함은 「몸을 닦는다」는 것인데 今日的 倫理學上의 말노하면 人格의 修養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으로 身이라하는것도 身體 卽 肉體的 意味의 身은 아니요. 人格이라고 解釋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또 大學의 말노하면 修身은 明明德이다. 大蓋 身이 修하면 이른바 明德이 밝어지고 反對로 明德을 밝히게 되면 個人的으로 其身이 닦거질 것이다. 이 二者는 同養異語이다. 修身의 法은 上述의 正心 誠意 至知 格物을 行함에 잇나니 이제 다시 여기에 述할 必要는 업슬 것이다. 大蓋 至知 格物에 依하여 知識을 研磨하고 誠意에 依하여 意志를 誠實히하고 正心에 依하여 情緒情操를 正平히하면 스스로 그들이 修하고 人格完成이 되고 明德이 또한 밝어질 것이다. 이리하여 그 根本이 確立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 「自天子以至庶人喜是皆以修身爲本」이라한 것이다. 이것이 大學에 나타난 實踐道德思想의 極致이다. 이 完成된 人格 다시 換言하면 밝어진 明德이 天下國家 社會的 客觀적으로 章明投寫하여써 家齊하고 國治하고 天下泰平이 되는 것이다. 今日的 言으로 表現하면 人格의 社會的 擴充이 되는 것이다. 이리케 제 몸을 修하여써 家國天下에 推及하는 方法은 大學에는 絜矩의 道라하였다. 大蓋 修身으로부터 齊家治國平天下에 至하는 道程이 되는 것이다.

大蓋 大學의 要旨는 修己治인에 잇는 것이니 修己 卽 修身의 道는 前에 말한 바와 갓거니와 治人 卽 政治에 關한 對象은 齊家治國平天下의 三者이다. 이가 大學思想에 從하면 天下의 要素는 國家이고 國家의 要素는 家에 在하다는 것이다. 普通今日の 國家政治의 思想이라하면 너무나 廣義的이요. 立法 行政 司法의 諸方面에 關한 좀처럼 復雜한것이지만 大學에 意味하는 政治는 主로人民을 道德化하고 明德을 天下에 章明함에 在하여 比較的 單純한 것이니 大學所謂 「治人」은 主로 人民의 教化 乃至 道德化를 意味한것이다.

【德治主義】 大學에 나타난 治人の 道 卽 政治에 關한 思想은 基根本이 德治主義이다. 換言하면 道德을 目的하고 道德을 手段으로하여 行하는바의 政治이다. 이 이 名家나 法家の 政治主義인 功利主義와 選을 달니하는 것이다. 卽 前者는 王道이고 後者는 霸道乃至權道이다. 이 思想은 멀니 堯舜時代로부터 傳來한것이니 支那는 勿論 東洋에 對한 君王政治의 正道로 한 것이다. 아니 大學의 德治主義의 內容을 보면 其根柢는 修身에 잇는 것이다. 그럼으로 三綱領에는 「明德을 밝힌 後에 民을 새롭게 한다」고 말하고 八條目에는 「平天下 治國 齊家是 先要其修身」이라고 論하였으니 卽 「修身而後

家齊 家齊而後天下平」이라고 明言한 것이다. 이와 갖치 己을 推하여 人에 及하는 法을 絜矩의 道라고 한다는 것은 前述한바이다. 絜矩의 道라는 것은 要컨대 孔子의 忠恕이다. 그럼으로 大學에 「所惡於上母以使下 所惡於下母以事上 所惡於前母以先後 所惡於後 母以從前 所惡於右 母以交於左 所惡於左 母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라 한 것이니 要컨대 大學의 政治思想은 絜矩의 道이오. 德治主義이다. 그러니까 今日의 所謂「人格主義」라고 하는 것과 大畧同一한 것이다.

即 自己의 人格을 먼저 確立한 然後에 齊家 治國平天下의 實를 舉하려는 데 잇는 것이다. 이 思想은 西洋思想史에 徵證할지라도 現代의 政治學에 對照할지라도 決코 錯誤될 것이 업는 것이다. 例컨대 「소구라테-스」, 「푸라톤」 등의 哲人主義的 政治說 「아리스토텔레-스」의 倫理的 政治說은 前者의 例이오. 國家的 善의 實現을 企圖하는 現代의 政治說도 또한 褻書로 하는 것이다. 다만 現代의 政治는 復雜多端한 것이니까 根本은 道德主義라야 할 것이나 서로 多小의 權道 霸道를 混合할 必要잇는 것은 말할 것도 업는 것이다.

(一)齊家 大學의 道는 己를 修함과 共히 人을 治함에 잇는 것이니 그의 第一着步는 제 몸에 가장 각까운 社會의集團 即 집을 가작히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大學에 「欲治其國者 先齊其家」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럼으로 齊家是 家族의生活의 道德的 形成을 目的한다는 것이니 그 要件으로는 「辟을 戒」하는 것이다. 辟은 徧함이니 一方에 徧狹한다는 것이다. 所謂齊其家 在修其身者 人之所親愛而辟焉 之其所賤惡而辟焉之其所畏敬而辟焉 之其所教情而辟焉 之其辟哀矜而辟焉 故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者 天下鮮矣」라고하여 吾人의 感情이 好惡의 徧에 陷入하는 것을 戒한데 不外한 것이다. 참으로 好惡의 徧情에 依하여 집을 가작히 하려면 반드시 不公平이 生기어 一家가 到底히 다 사리게 되지 못할 것이다.

또 大學에 孝弟慈를 必要로하였나니 換言하면 一家仁을 期코자하는 것이다. 即 「君子不出家而成教於國 孝者所以事君也 弟者所以事長 慈者所以使衆也」라한것과 一家仁一國興仁 一家讓一國興讓」이라 함과 갖것은 孝弟慈 即 단말노하면 仁讓의 德을 齊家의 必要로하여 이 仁讓의 道가 잘 行하면 國天下도 또한 스스로 忠 順 惠 등이 完全히 行하여컨다는 뜻을 表明한 것이다. 要컨대 齊家의 要는 修身을 本으로하고 絜矩의 道에 依하여 仁 即 孝弟慈를 宗旨로하고 辟에 陷치안토록 힘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잇는 것이다.

(二)治國 所謂國은 邦國을 政治한다는 것이니 그 要는 家를 齊함에 잇다는 것이다. 그것은 古來로부터 그 家를 齊치 못하고서 能히 그 國을 治한 例업음으로써이다. 그럼으로 「家齊而後國治」라고 孝한 者는 君에 事하면 忠이

되나니 孝經에 「君子之事親孝故忠可移於君 事兄弟故順可移於長 居家理故治可移於官」이라고 하는 것도 이같은 것이다. 또 治國者에 必要한 德으로써 仁을 擧하였다. 그럼으로 堯舜師天下以仁而民從之 桀紂師天下以暴而民從之 其所令反所好而民不從 是故君子有諸己而後求諸人 이라고 한 것이다. 또 「宜其家人而後可以教國人」 「宜兄弟而後可以教國人」 「父子兄弟足法而後民法之也」라고 하는 것은 君子 그 家를 齊하면 自然히 그 國을 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을 말한 것이다.

(三)平天下 天下라함은 世界國家의 總稱이요. 平은 平安히 한다는 것이니 換言하면 統一國家를 泰平히 한다는 것이다. 그 道는 먼저 그 國을 治하는데 있다는 것이니 所謂平天下在治其國者 上老老而民興孝上長長而興弟 上恤孤而民不倍 是以 君子有筐矩之道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것은 總師된자부터 老人을 섬기는 道로서 家의 老人을 尊敬하면 人民이 모다 이것을 模倣하고 國發興起해야 그 父母에 孝養을 다할 것이요. 또 長者를 섬기는 道로써 家의 長을 尊敬하면 百姓도 또한 이것을 模倣하여 兄에 弟를 다할 것이요. 또 孤獨을 愛恤하면 百姓도 또한 重厚해야 社會公益에 貢獻할 것임으로써이다. 또 平天下의 法으로써 德을 本으로하고 財를 末로 할 것을 力說하였나니 「有德此有人 有人 此有土 有土 此有財」라 하여 有德으로써 其根本을 삼은 것이다. 이것이 즉 王道의 基礎이니 彼 「管仲 等の 霸道 即 公利主義와 相異한 點이다. 또 人材의 登用을 力說하였나니 大學에 「見賢而不能舉 舉而不能先命也 見不善而能退 退而不遠 過也 好人之所好 惡人之所好 是謂拂人之性 舊必速夫身是故君子有大道 忠信以得之 驕泰而失之」라 하여 賢人으로 登用하며 不善을 退하고 萬民의 好하는 바를 好하고 그 惡하는 바를 惡하여서 天下에 政事를 施行할 것을 說破한 것이다.

그 心術를 가지는 法은 君子의 大道를 踐履하고 忠信 實를 다하여서 스스로 欺치 말고 驕慢肆泰치 안을 것이라 하였다. 此外에 平天下의 條目에 君子는)利私보다도 義(公)를 重히할 것을 말하였으나 要컨대 絜矩의 道에 依하여 仁을 行하고 天下萬民으로 하여금 各々其處所를 엇게 하여서 生活의 安樂을 享得할 것을 말한 것이다.

…………(끝)……